

기획 - 진행 - 평가까지 알찬 준비가 관건

불교계 국제행사,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불교계가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들어 세계여성불자대회, 세계종교지도자대회, 불교학술회의, 금강대 국제불교학술회의, 동국대 국제생태학술회의, 세계시인대회, 참여불교세계대회, WFB한국포럼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분야도 학술대회 위주였던 예전에 비해 명상·문화·NGO 등 교류의 장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3개 이상 국가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무조건 '국제대회'라고 불릴 수는 없다. 국제대회는 명칭에 걸맞는 규모와 내실, 평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계가 주최한 국제행사들은 늘어났지만 마친 후 뒷말도 많다. 기획력 부재나 준비미흡으로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 국제행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어떤 대회가 있었나

올 상반기에는 '세계종교지도자대회' '한국불교학술회의' '명상치유 공연예술 및 심포지엄' '국제생태학술회의' 등이 열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6월 개최한 '세계종교지도자대회'에는 18개국 8대 종교단체 35명의 지도자가 참석했고, 개·폐회식에는 3000여 명의 종교인들이 참석했다. 4월 열린 '제3회 한국불교학술회의'에는 7개국 13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논문 130여 편을 발표했다.

동북아음악연구소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중·일 불교음악 학술대회, 천태 국제불교학술회의'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 가며 국제학술회의로 자리 잡은 행사이다.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소장 김태준)의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등도 개최됐다.

7월 20~21일에는 한국화중양연구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가하는 일일삼국유사 국제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전 세계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시세계를 교류하며 극찬을 받았던 세계시인대회는 한 번으로 그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사카디타(Sakyadhita, 세계여성불자대회)는 2004년 한국에서 개최돼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개최로 평가받기도 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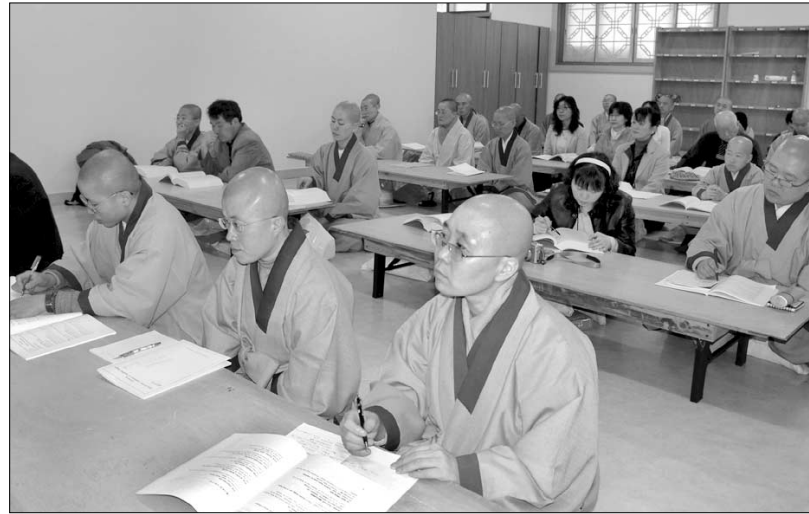
● 기획 전문성 부재
국제대회 개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획·준비단계의 전문성 부족이다. 대부분의 대회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추진되다보니 전문적인 기획이 이뤄지지 않고, 준비역시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일쑤다. 과거 한국

제학술대회를 준비했던 김보(동국대 불교대학원)씨는 "당시 보름 만에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토로한다. "촉박한 마감 시간에 쫓겨 국내 교수들은 예전에 쓴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아예 초록만 작성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논문집은 아예 개최식이 끝난 후에 나왔습니다. 외국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까지도 참석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간신히 행사장에 도착한 참가자는 10분간 발표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덧붙였다.

5월 2~4일 에이팬 한국본부와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명상치유 공연예술 및 심포지엄' 역시 팍팍함이 나온 이후에도 공연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촉박한 일정에 쫓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 행사 목적 '아리송'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세 나라 이상만 모이면 행사 이름에 '국제'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다 보니, 친분 있는 외국 인사 두세 명만 초청해 놓고 '국제대회'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될 때 국제대회 목적이 연구 성과 발표와 상호간 교류라기보다 '친목의 장'에 머물게 된다. 특히 학술대회의 경우 세계의 유명 학자들이 '제 내 고 찾아오는'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언어 불통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불교 용어를 제대로 번역·통역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다. 논문 번역과 통역이 영어로라도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논문발표가 이런 상황이라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국제대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마저 뒷전이 된다.



지난 4월 열린 불교학술회의는 16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다보니 한 논문당 발표시간이 10여분에 그쳐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자리를 들여서라도 행사에 참여하려는 외국학자들이 많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행사이기도 하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강원도 만해마을에서 열린 세계시인대회는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쳤기에 체계적인 행사 운영, 해외시인들의 높은 참석률 등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꼽힌다. 이같은 행사는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상호교류'라기 보다 '친목의 장'에 머물러

주먹구구식 준비...자료집 제 날짜에 못내기도

번역·통역·전문기획자 등 인력양성 시급

역과 통역이 영어로라도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다. 논문발표가 이런 상황이라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국제대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마저 뒷전이 된다.

● 기획·진행 노하우 안 쌓인
국제대회 기획 및 진행 노하우가 축적·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 그간 불교계에서 열린 국제대회가 적지 않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평가를 담은 보고서가 발간된 적은 드물다.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는 이유다. 2004년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처럼 아예 대회 진행을 일반 행사 업체에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회 준비 단계에 참여했던 한 비구니스님은 "불교계 인력들이 큰 대회를 개최해보고, 이것이 불교계의 노하우로 축적되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수탁하다보면 1회성 행사에 그칠 뿐이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을 '규모'로 메우려는 마인

드도 팽배해 있다. 개최식은 주최측이 동원한 인원으로 가득 차지만, 정작 학술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 본론에 들어가는 열람하다. '규모만 국제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내실있는 대회가 되려면

● 개최목적 뚜렷해야
국제행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확한 목적의식'이다. 왜 대회를 개최하며, 왜 '국제' 대회를 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될 때, 비로소 대회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고 초청대상들도 결정해 '모실 수' 있다.

● 불교용어 번역 통일안 마련
불교 전문 통역·번역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교용어의 번역 통일안도 마련되지 않아 있다보니 번역자가 스스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하루빨리 불교계가 나서서 불교용어에 대한 외국어 번역 통일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중

단 차원의 번역 전문 기관 설립' 등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다. 번역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통역 인력을 배출해 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동국대 등 불교종립대학들도 행사기획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 불교적인 마인드를 지닌 행사기획자가 없는 만큼 불교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행사기획자들을 키우는 것도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다.

● 노하우 공유 창구 만들기
지속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곳이라면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또는 불교계 밖의 우수 사례 등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해야 한다. 5월 열린 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회에서는 '세미나 발표자 평점표와 개선점 기술한 서식표'를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해 발표자들의 논문에 대한 평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참가자들이 적어 낼 수 있도록 해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잘못된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공지원금 적극 활용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 예산은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기폭이나 부족한 재정이 대부분이 외국학자들의 항공료와 체재비용으로 쓰이다 보니 정작 대회 진행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로또기금 등 다양한 공공지원책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만한 실적을 쌓아야 하는 만큼, 결국 최선의 노력을 다한 최고의 행사를 치러야만 이후 지원의 길도 더 폭넓게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을 참가자 자신이 부담해야 했던 2006 불교학술회의에 많은 외국학자가 불참한 것은 지난 3년간 대회를 국제행사로 키워온 주최측의 노력 덕분이다.

6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자비를 내고 참가했던 국내 참가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것 역시 대회 자체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요한 행사라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김종명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북미쪽에서 한국 학회에 초청받아 오는 학자들 대다수가 '투어'라고 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제행사 수준을 낮게 본다"며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명예욕과 외국인 참가자 머릿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행사의 질을 높여 자비로라도 참가하게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연·여수영 기자

무구정광대다라니범서 소장용 액자 및 사경집 발간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복덕과 선근은 정성껏 계를 지키며 법담과 공양을 올리고 이 주문을 77번 읽어주면 7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리라. 이 다라니를 지성으로 77번 외워주면 나쁜 곳에 태어났더라도 즉시 그곳을 떠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이 다라니를 집안에 모셔놓기만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물며 사경하고 향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말로써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범서 액자 10만원

금니 다라니 20만원

* 20%할인 *
* 20%할인 *
* 20%할인 *
* 20%할인 *

용연사 회주 일응당 지성 큰스님 추대법회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는 음력 7월 초하루 법회를 맞아 전 동화사 주지 일응당 지성 큰스님을 용연사 회주스님으로 추대하는 특별법회를 개최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이번 특별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지성큰스님을 친견하시고, 세계생생 선근인연의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6년 7월 25일(음, 7. 1)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비슬산 적멸보궁 용연사 극락전

용연사 주지 상원 합장
사 부 대 중 일 동

비슬산 용연사 행사 안내

■ 후불탱화 조성불사 점안식 및 개금불사 회향

-일시: 11월 5일(음, 9. 15) 오전 10시

-장소: 용연사 극락전

■ 수능입시 백일기도

-일제: 8월 9일(음, 7.16) 오전 10시 30분

-회향: 11월 16일(음, 9. 26)

-장소: 용연사 적멸보궁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적멸보궁 용연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 ☎053)616-8846, Fax053)616-0408

● 구입문의 : 053)943-2107, 011-9585-0386
● 한글주소 : 불교기획(www.bulta.co.kr) 인터넷 주소창에 불교기획만 치세요.
※ 광명진언, 대불정능엄주 범서 사경본도 곧 출간됩니다.